

2026.9.26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이스라엘의 황폐와 사무엘의 기도
본문: 사무엘상 4장1-4, 5장1-4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영적 가뭄기였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처참한 재앙이 임했다. 오늘 본문 **삼상4-6장**의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곧 예배를 실패하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영적인 가뭄기로 350년간 재앙이 있었지만 더 비참한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다. 블레셋들이 쳐들어와 언약궤를 빼앗고 성막이 다 무너지는 상황까지 만나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영, 육간의 모든 모습이 다 황폐해진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본론>

1.언약을 잃고 미신 종교화된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와 고통을 주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언약궤는 가지고 왔지만 그 신앙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언약이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역 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받

을 수 없기에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에만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들은 언약을 버리고 세상 이방인들처럼 변해 버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지만 이방 미신을 믿는 백성들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미가의 집이 그랬었다. 그 미신 신상을 가지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먼저 나온 사람을 드리겠다고 인신 공양했던 사사의 신앙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계없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쟁에 패하고 난 후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다.**[삼상4:3-5]**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상징을 이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며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 절실함과 종교성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지해졌는가! 사무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말씀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영적으로도 육신의 삶으로도 오기 때문에 이토록 무지한 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종교와 헛갈려 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성경의 정보가 많고 가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일반 종교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많다. 진짜 언약의 내용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잘 모른 채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승리할 것을 외친다.**[삼상4:5]** 성도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 지식이 아니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2.이스라엘의 황폐함 속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진영에 들어왔을 때 사기는 고취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비느하스와 흡니는 죽고 성막까지 무너지는 처참함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귀신같은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보다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냐며 또 착각을 한다.**[렘7:4]** 그러나 실로에 행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한다.**[렘7:14]**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 다곤 신 앞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을 지키신다.**[삼상5:6-7]** 하나님의 역사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만드신다.**[삼상6:2,5]**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은 하나

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성도는 자기 삶에 여러 실패, 문제, 황폐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한다.

3.이스라엘의 황폐 속에 기도하는 사무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지키신다. 언약궤는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시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다. 이 시간이 20년 동안 지속된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다. 이 시간은 사무엘의 기도의 시간으로 눈물로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로 변하게 된 것이다.**[삼상7:1-2]** 350년의 깊은 뿌리를 바꾸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반드시 성취되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미스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빨리 안 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변 상황을 가지고 자기 소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충실한, 충성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하고 되어야 한다.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삼상3:21]** 내가 황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과 현장과 가정도 후대도 역사하신다.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임하기를 축원한다.